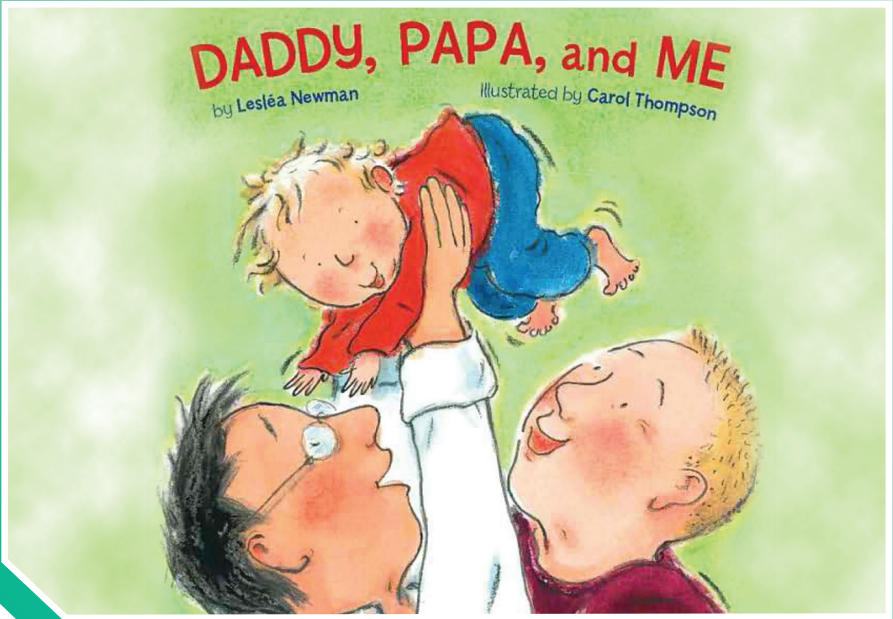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동성애(Homosexuality) 시리즈(4)

이들의 열매는?

“2세대들이 서명하는 것은 거의 못 봤어요!”

몇 달 전 탐사여행에 참석하신 한 권사님께서 동성애 교육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CLASS ACT’ 서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하신 말이다.

지난 2011년 7월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는 ‘SB48 법안’에 서명을 하였다. SB48 이란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성전환자에 대해 이들의 행위는 개인적 취향이며 긍정적으로 취급되도록 유치원생부터 12학년의 교과서에 수록시킨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SB48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CLASS ACT 주민발의안 서명 운동이 전개되어왔다. 그러나 서명

테이블에 가보면 2세들의 모습은 좀처럼 관찰하기 어렵고 1세들만 보인다. 부모들이 서명을 독려하더라도 오히려 이들은 동성애자들에게도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반응하는 자세를 취한다. 위의 권사님께서는 2세들의 이 상반된 반응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SB48법안 상정을 위해 상원의원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성별에 대한 단어를 'sex'가 아닌 'gender'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뜻 같지만 실제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Sex의 경우는 '생물학적 성'으로서 태어날 때 갖는 변할 수 없는 성별을 의미한다. 반면에 gender는 '사회적 성'으로서 생물학적인 구분과 상관없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성별을 의미한다. 즉 성전환자처럼 자신에 의지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성을 말한다. 단어 선정 자체가 이미 남녀 성에 대해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19세기 후반부터 동성애자라는 의미는 타락된 인간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닌 보호받아야 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로 그 위치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이들의 행위가 성적 취향으로 “옳냐, 그르냐?”가 초점이었지만, 이때부터는 “누가 이런 일을 했냐?”로 질문이 바뀐 것이다. 즉 동성애자들이 ‘누구’라고 하는 특별한 종(species)과 같이 하나의 범주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다윈의 ‘종의 기원(1859)’ 출판과 함께 진화론적 흐름을 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다루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도덕적 문제야’에서 ‘동성애자’라는 하나의 인정 받는 범주로 변하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더 나아가 법까지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추세가 진화론을 먼저 받아들였던 유럽을 넘어 미국까지 넘어 온 것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인권’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자신들이 1967년까지 미국에서 백인과 아프리카계 흑인과 결혼이 불법이었지만 오늘날 합법화된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을 동성애자와 동등한 위치에 놓는 무모한 비교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인종에 대한 진짜 권리를 희석시키는 자세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흑인 지도자들은 동성애자들이 자신들과 비교하려는 움직임에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분명한 선을 그어왔다. 실제로 동성애자에 대한 유전적, 생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유전적 생물학적 결과인 피부색과 동성애자를 같은 선상에 올려 놓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일 아닐 수 없다 (남녀에 대한 생물학적 구분은 지난 달 칼럼에서 이미 다루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인정하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그 동안 사회와 학교가 동성애에 대해 ‘인권’이라고 언급해왔으며, 각 미디어도 연민의 자세로 이들을 대하는 추세도 한 몫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반대하면 이런 추세에 합류하지 못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관대하지 않은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이다. 2세들이 CLASS ACT 주민발의안에 소극적인 이유도 이런 사회적 대세가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동성결혼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겉보기에 사회에 그리 해롭지 않을 것이라 가벼운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문제점은 감추고 겉보기에 그럴듯한 점만을 부각시키려 하기 때문이지, 실제로 동성애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통계들을 보면 동기뿐 아니라 그 결과들도 아주 심각하다.

1981년의 데이터를 보면 남자 동성애자들 중에 43%가 500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28%가 1,000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¹ 이런 모습은 동성애가 하나의 독립된 동기가 아니라 성적 문란함의 도덕적 무감각의 연장선에서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동성을 보면서 성적인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동성애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성애자는 동성끼리만 관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완전한 동성애자(homosexuals)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성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은 동성뿐 아니라 이성과도 관계를 갖는 양성애자(bisexuals)이기 때문이다.



동성결혼 가정에 입양된 어린이

이런 성적 문란함은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질병과 연결된다. 동성애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성적 감염에서 오는 질병의 어려움을 훨씬 많이 겪는다. 물론 성적인 질병이 이성애자들 사이에도 발생하지만, 동성애자들의 성관계에 따른 병의 발생 비율이 전체 평균치보다 22배가 높다!² 성적 감염률은 여러 사람과 가질수록 높는데, 일부 일처의 경우는 거의 없다. 동성애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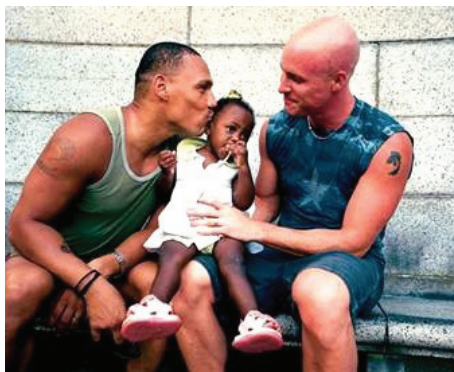
의 높은 성병 발생률은 동성행위 자체가 갖는 성병의 위험성과 이성 간의 성적 문란이 더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생리학적으로 볼 때도 우리의 몸은 이성간 관계를 갖도록 디자인되었으며, 절제된 성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성에 대해 기준이 없이 등장한 동성애는 의학적 열매를 보더라도 심각한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HIV/AIDS와 관련시켜 언급하는 것에 대단히 민감하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동성애와 HIV가 연관이 있는지는 확실히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통계가 보여주는 결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2004년 보고로는 HIV 감염으로 추정되는 남자 성인과 청소년의 70%가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남자”였다. 이는 2006년 보고대로 5~7% 미국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자면, 동성애를 하는 남자가 HIV감염자의 전체 비율에 월등히 높게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³ 실제로 에이즈가 발생한 이래로 2004년까지 에이즈 감염 남자의 66.92%가 동성관계를 가진 남자로 발표되었는데,⁴ 이 결과도 동성애자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라고 볼 때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높은 지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의학적 심각성은 그 불이익이 단지 동성애자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 똑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감염의 위험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 느끼지 못하는 재정적인 누수도 무시될 수 없다. 2004년 연방정부에서 HIV/AIDS 방지와 치료에 사용했던 비용만 110억 달러에 이른다.⁵ 그러나 여기에 주, 카운티, 보험회사 등에서 사용된 비용까지 합산 한다면 훨씬 높다.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단지 의학과 재정적 문제만이 아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이들이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것은 입양(박스 안 통계자료 참고) 합법화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어떤 경우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에 자녀를 낳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성 부부와 같이 애를 키워보고 싶은 것이다. 2010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미국



동성결혼 가정에 입양된 어린이

에는 약 594,000 동성커플이 있는데(현, 동성커플은 64만 명이 넘었음), 이들 중에서 115,000 가구가 자녀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자녀 중 73%가 생물학적 자녀인데, 이성 부부 가정이 90%인 것에 비해 훨씬 낮은 비율이다. 동성 부부 가정의 21%는 의붓자식이거나 입양한 경우이다.⁶ 일단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이들을 부부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입양을 막을 방도는 없다. 그러나 이때 입양된 아이의 운명을 생각해보았는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동성에 부모들 밑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것은 너무 자명한 것이다. 앞으로 동성결혼으로 인한 사회적 혼돈에 드는 에너지는 이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가 고스란히 떠 맡게 될 것이다.

또한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식들이 동성행위 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오는 정신적 충격은 실로 크다. 멀리 신문 지상에서 등장하는 자신과는 관계가 적은 사람이 하는 것과 가까운 가족에게서 발생한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금 자신과 직접 관계 있는 동성애자가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동성결혼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동성애에 대한 충동이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도 예상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 7:16-20)

동성애자와 자녀

레지비언 3명중 1명은 자녀를 낳은 경험이 있음
 50% 이상의 게이와 41%의 레지비언은 자녀를 원함
 2백만 게이, 레지비언, 양성애자들이 입양에 관심
 65,500 명의 입양 된 어린이들의 부모가 게이 혹은 레지비언
 이 중 16,000 명의 입양 어린이들이 캘리포니아에 거주
 14,100 명의 위탁 어린이들이 게이나 레지비언 부모와 거주함
 입양 된 어린이 4%가 게이 레지비언 부모에게 입양 됨

이상 자료 출처: Adoption and Foster Care by Lesbian and Gay Parents in the United States, Gary Gates, Lee M.V. Badgett, Jennifer Ehrle Macomber, Kate Chambers. (2007) "<http://www.urban.org/publications/411437.html>"

동성 커플의 입양비율 증가: 2000년 8%, 2009년 19%

자료 출처: <http://williamsinstitute.law.ucla.edu/press/releases/as-overall-percentage-of-same-sex-couples-raising-children-declines-those-adopting-almost-double-significant-diversity-among-lesbian-and-gay-families/>

동성애에 대하여는 그 열매만 보더라도 그것이 바른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 우리는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들은 사랑, 연민, 축복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용어가 진리가 아니다. 이런 용어들은 자신과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다. 열매만 본다고 할지라도 이런 용어들이 동성애와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동성애에 대하여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 심각성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는 나와 우리 자녀만 지키면 된다는 근시안적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그 열매를 알기 때문에 포르노, 근친,

일부다처를 반대하는 것과 같이 동성애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반대하여야 한다. 이것이 동성애자와 우리 자녀 그리고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1. Bell, A.P., Weinberg, M.S. and Hammersmith, S.K., 1981, Sexual Preference: Its Development in Men and Women,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Indiana
2. Bergman, Jerry, Creationism and the problem of homosexual behavior, Journal of Creation 9 (1):121-130, April 1995
3. CDC, (2006), HIV/AIDS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Atlanta, GA: US DHHS,
4.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Basic Statistics: AIDS by Exposure Category / Estimated # of AIDS Cases Through 2004", HIV Infection and AIDS in the United States, 2004,
5. Trends in U.S. Government Funding for HIV/AIDS: fiscal Years 1981 to 2004, Washington, D.C.: Office of the Actuary, 2004,
6. Same-Sex Couple Households, American Community Survey Briefs, 2011, <http://www.census.gov/prod/2011pubs/acsbr10-03.pdf>,



2012 창조과학컨퍼런스

창조과학선교회 강사들이 7명 모두 참여한 2012 창조과학 컨퍼런스가 지난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시카고 헬로쉽교회 (담임 김형균 목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11년 만에 시카고에서 다시 열린 행사로 “노아홍수와 빙하시대” 주제로 노아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 후 열국으로 분산하는 과정에서 빙하시대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성경말씀과 그 과학적 증거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 이었습니다. 컨퍼런스는 주일학교 트랙(김낙경 박사), 중고등부와 EM 트랙(김선욱 박사), 그리고 일반트랙(이재만 선교사, 최우성 박사, 김무현 박사, 최태현 박사, 이동용 박사)로 나뉘어 전 교회적으로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시카고 헬로쉽교회를 중심으로 연일 기대 이상으로 참여하였는데 현재 20-30대 젊은이 95% 이상이 교회를 떠나는 위기를 모두 인식하며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하시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공감하고 도전 받는 시간 이었습니다. 말씀의 증거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시카고 지역 협력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후원자와 섬겨 주신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창조과학 세미나

6월 10일: LA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정엽) 새신자반, 이상 이재만; 6월 10일/17일: 시카고 헬로쉽교회(담임목사 김형균), 이상 이동용; 6월 15-17일: Lending Hands Community Church Columbus, OH, 이상 김선옥; 6월 17일: 소망장로교회(담임목사 성준기), 이상 최우성; 창조과학 세미나를 열어 주셨던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토대 위에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컨퍼런스 강사 소개

제 3기 ITCM-1

6 명이 참가한 제 3기 ITCM-1이 6월 20일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5명의 대학생과 1 명의 과학교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CGN-TV 탐사여행에 함께 세도나, 그랜드캐년,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으로 이어지는 창조과학탐사여행에 이어 데스밸리와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지나는 빙하시대 탐사여행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



일반트랙(이재만 부회장)



주일학교 트랙(김낙경 박사)



일반트랙(김무현 박사)



EM 트랙(김선옥 박사)



CGN-TV 탐사여행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린 크리스천이 되어 차세대 교회의 흔들리지 않는 핵심 멤버들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과학 사역자들도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3차 ITCM-1 과정은 8월 18일에 마치게 됩니다.

탐사여행

CGN-TV 6/23-28 탐사여행

지난 6월 23-28일 6일간 CGN-TV에서 탐사여행을 참석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그랜드캐년 지역뿐 아니라, 데스밸리와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이어지는 빙하시대 탐사여행까지 했습니다. 올해는 연예인 이홍렬 집사님, 이윤미 자매님도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해 탐사여행 이후 “창조과학 탐사 아웃리치”와 “창세기 대홍수” 영상을 멋지게 제작해주셔서 사역의 귀한 도구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기대합니다. 영상은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새로운 영상은 7월 말에 CGN-TV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파사데나 드림교회



탐사여행 중인 TCM 참가자들

파사데나 드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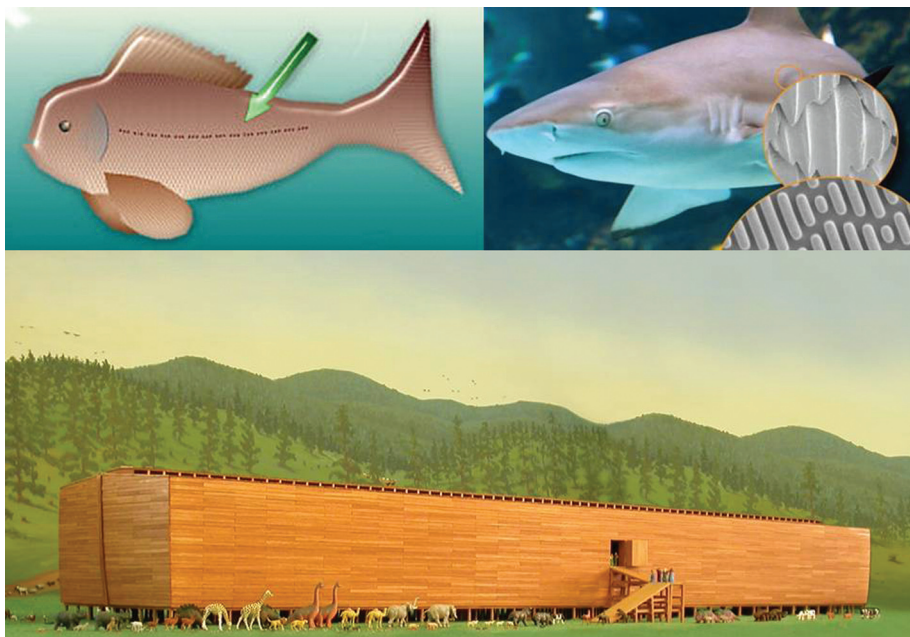
지난 6월 11-13일 파사데나 드림교회(담임목사 이성현)에서 탐사여행에 참석했습니다. 교회로서 첫 번째입니다. 탐사여행을 마치고 바로 올 겨울방학 동안 2세들을 위한 탐사여행, 성인들도 앞으로 교회 차원으로 지속적으로 참석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유학생 탐사여행 모집 (인도: 이재만 선교사)

14차 유학생 탐사여행: 2012년 8월 6-8일(월-수) 2박 3일
LA- 모하비 사막- 세도나- 그랜드캐년

유학생 탐사여행은 서울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재훈)와 얼바인 온누리교회(담당 목사 권혁빈)가 후원합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 후 과정에 있는 학생과 배우자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학생 내외도 참가 가능합니다.

참가 대상 및 참가비: 유학생과 배우자(\$100), 유학생 가족(\$320)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설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두개의 건축물을 들라면 하나는 성막이고 다른 하나는 방주일 것이다. 성막에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방주는 조선공학자가 아닌 노아가 그런 엄청난 건축물을 스스로 설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 이리라.

방주는 속도를 내야하는 배가 아니고, 내부 용적을 최대로 하며 단지 살아남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유선형 (streamlined)이 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기다란 상자 모양의 부유체가 된 듯하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도 대형유조선들은 거의 기다란 상자 모양의 단면으로 설계된다. 하지만 극심한 바다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가지의 필수 설계조건이 있는데, 즉, 복원 안정성, 구조 안정성, 항해 안전성이다. 이 세가지 안정성은 장-폭-고 (length-width-draft)의 비율에 따라 아주 달라지게 되는데, 조선공학에서는 이 세가지 조건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최적의 설계를 찾기 위하여 관심이 기울여질 것이다. 물론 그 전에 배를 한번도 설계하거나 지어본 바가 없는 노아가 이런 내용들을 알리는 만무하다.

성경에는 방주의 장-폭-고 비율이 300:50:15 (홀수를 높이의 반으로 가정하여)라고 되어있다. 일전에 한국의 선박연구소에서 상자 모양 방주의 장-폭-고 비율을 여러가지로 변화시켜 가며 실험을 하고 위의 세가지 안정성에 비추어 최적의 비율을 연구해 보았는데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비율이 최적의 조건에 가까운 것으로 결론을 내었다.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들 중에는 불신자들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유도해 낸 것은 물론 아니었다.

아수르 길가메쉬 신화의 점토판에도 대홍수와 방주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흥미롭게도 방주의 모양이 정육면체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만일 방주의 모양이 기다란 상자모양이 아니고 정육면체이면 아주 작은 파도에도 쉽게 전복되고 만다. 이런 점이 고대 인간의 머리에서 만들어 낸 신화의 한계를 보여주는 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는 놀랍게도 현재의 최첨단 선박 설계기술과도 잘 부합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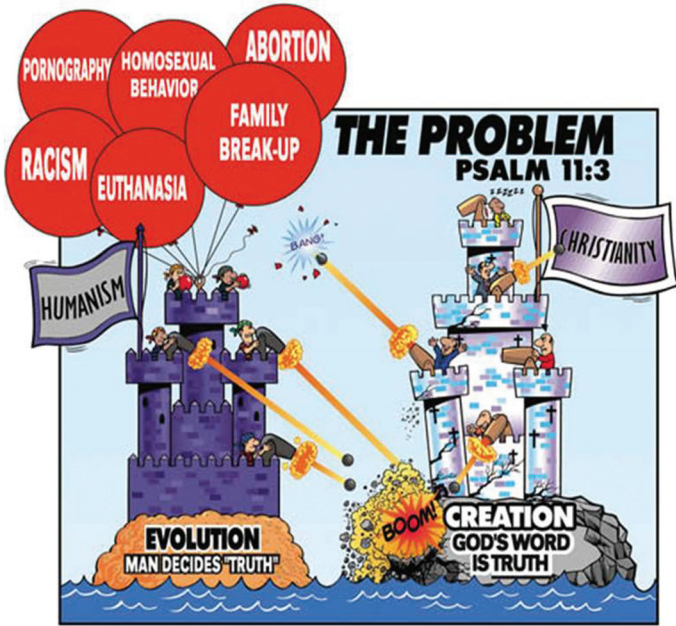
현재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생명체의 놀랍도록 신비한 기능에 대해서 그 비밀들이 하나 하나 드러나고 있다. 그러한 생명체의 놀라운 설계기술을 모방하여 혁신적 아이디어를 잡아가는 “생명체 모방공학”이 최근 들어 많이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어의 피부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미세한 돌출 격자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피부는 완전히 매끈한 피부에 비해 유체저항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 (훨씬 큰 스케일이지만) 골프 공의 표면에 약간의 돌출부분을 가미해 주면 공기저항이 현격히 줄어드는 것 과 유사하다. 그렇게 해주면 매끈한 표면이 100야드정도 갈 수 있는 거리를 약 300야드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러한 상어피부의 나노구조를 응용하여 속도를 최고로 높여주는 최첨단 수영복, 선박 페인트, 미사일이나 비행기의 표면처리등에 활용하고 있다.

물고기 몸에는 측선 (lateral line)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물의 온도 및 염분, 유동 속도 및 특성들을 측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최적 제어반응을 하게 된다. 즉 고도의 기능을 담당하는 센서 어레이 (sensor array)를 탑재하고 그 신호로부터 제어 (control) 및 반응(actuating)을 명령하는 최첨단 알고리즘이 물고기 안에 이미 장착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조금씩 흉내내기 시작하여 “sensor-based smart flow control”이라는 최첨단 공학이 막 태동하고 있는 단계이다.

지성이 없는 물질뿐인 자연이 그 신묘마축한 설계들을 스스로 했다는 것으로 난센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설계자가 없이 자연이 스스로 우연히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굉장한 맹신이야 아닐 수 없다.



김무현 박사
해양 공학



타협의 불행한 결과

19세기 초엽 성서 지질학자들은 지구가 오래 되었다는 지질학 이론을 반대했었는데, 이는 이 이론이 잘못된 과학적 논리를 보여 주고 성경과 대립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러한 이론과 타협하려는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건전함과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교회의 증언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성공회 목사였던 헨리 콜(Henry Cole)은 다음과 같이 썼다.

그렇지만 많은 존경 받는 지질학자들은 역사적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 사이에 구별을 두면서,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은 영감을 받았고 절대적인 진리지만 역사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함으로써 신성한 계시에 대한 그들의 (불완전한) 존경심을 분명히 표시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해석, 수정, 심지어는 부정의 문도 열어 놓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 없고, 무신론적이며, 수정하기 잘하고 분리하기 잘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영감을 받은 부분은 삼분의 일도 안되고, 아마 훨씬 더 적을 것이기에, 그 말씀은 추상적인 윤리적 계시와 지침과 훈계로 채워졌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삼분의 이는 어떤 과학적 수정이나 해석도 가능하며, 또는 (만약 과학적으로 필요하다면)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열려 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단언한다. 공공연히 사람들 앞에서 계시의

어떤 부분이라도 영감을 의심하고, 하나님 뜻에서 계시의 영감 모두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계시를 소유하는 땅에서 그런 결과들은 무엇이겠는가, 전국민적인 불가지론, 무 신앙, 배교행위의 첫 페이지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복수가 신속하고 무섭게 드러날 것이다!

콜과 오랜 지구이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창세기 1-11장을 포함하여)의 역사적 부분이 성서의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의 기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다. 역사적 부분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라 그러면 곧이어 당신은 교회 안팎에서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도 거부하는 것을 볼 것이다. 만약 성경을 믿던 지질학자들이 살아서 아래 있는 성 그림을 보고 있다면 그들은 “이 그림이 정확히 우리가 염려했던 것이다!”고 말할 것이다. 한 때 성경을 믿은 지질학자들이 교회와 사회에 대해 가장 걱정했던 것들이 유럽과 북미의 기독교 국가 안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제 교회, 특히 교회 리더들과 학자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는 지구의 나이와 과학적 증거들을 무시하는 것을 멈추어야 할 때다. 교회가 수백만 년과 타협했던 것을 회개해야 하며, 다시 창세기 1-11장의 문자적 진실을 믿고 가르쳐야 한다. 교회가 창세기로 돌아가야 할 때다.

Terry Mortenson, 역사지질학박사

출처: War of the worldviews, Answers in Genesis-US (2005)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 창세기 1:14



큰 숲 목회자와 안산동산교회 탐사여행

5/10 - 5/17/2012

우리가 배운 16년 학교생활은 진화를 마치 사실처럼 세뇌시켜 당연시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 약속해 주신 것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일꾼 양성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 김인중목사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 그 하나님이 아니면 한줌 먼지에 불과 했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사실이며 그 말씀이 아니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 이규현목사

하나님과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이은숙

진화론자의 실체와 영향력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성경의 중요성과 확실성,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실감하는 탐방여행이었습니다. - 정재준 장로

창조의 첫날, 셋째날, 노아시대, 방주, 심판 등등 모든 것을 성경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알게 되어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 이영애 권사

성경의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다시 새롭게 용솟을 쳤습니다. - 최영숙 <당진 동일교회>

성경은 무오하다는 생각이 늘 안개처럼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 노아홍수 사건의 현장과 빙하시대의 지질을 보면서 성경이 진리로 다가오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 이수훈 목사 <당진 동일교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창조 과학탐사여행 일정이었습니다. - 서정근목사<동은교회>

저의 남은 인생의 Turning Point 가 되었습니다. 여생을 창조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역에 전심을 다해 바치겠습니다. - 최천학 안수집사

진화론에 숨어있는 원수의 실체를 찾게 되었고,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길 목사<안산 만나교회>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창조과학탐사여행 ... 신앙의 성숙을 경험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홍송희 사모<안산 만나교회>

간절한 주님의 만져 주심을 소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 삶이 바뀌어질런지요...!
- 이선희 사모<금광교회>

목회적 짐을 얻기 위해 왔다가 영적인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도 성경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깨닫고 새로운 변혁의 가능성을 품고 돌아갑니다. - 김영삼 목사<금광교회>

창조론을 믿는 것은 의심하지 않았는데, 설명해 낼 수 없었습니다. ...,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보고 만지는 것 같습니다. - 권병학 목사<안산시흥>

성경 말씀에 기록된 현장을 목격하며 더욱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정확무오한 내용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 신용기 목사<대구 화원교회>

너무나 쉽고, 재미있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연현상을 이야기 해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경험의 여행이었습니다. - 변정애

전 우주적, 하나님의 창조론을 보지 못하고 있었고, 진화의 손바닥만 보고서 살아온 것입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의 창조론을 봅니다. - 유재명 목사<안산 빛나교회>

마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열매를 보시며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듯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 김여신 사모<안산 빛나교회>

전 세계 기독교회가 처한 위험한 현실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새로운 목회의 계획을 세우도록 도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이성욱 목사<부산 동산교회>

아름답게만 여겼던 자연이 우리를 향한 심판의 흔적이란 사실에 충격이었습니다. 이 흔적에서 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처음을 기억하도록 하심을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 강현미 사모<부산 동산교회>

마치 노아의 방주와 홍수 현장에 있다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국가, 사회, 가정, 교회 모두가 무너진 이유를 알게 해 주심과 성경을 거부한 결과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 - 이기동 목사<제자들교회>

세상을 보는 눈과 사고가 변화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세상을 멸망시킬 수 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 조경화 사모<제자들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 땅은 하나님의 흔적이며 또 다른 성령이었습니다. - 이옥이 사모<대구 대흥교회>

성경대로 믿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명철 목사<대구 대흥교회>

●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www.hisark.com의 “간증”란을 클릭하세요.

- 
- 8/6-8 창조과학 탐사여행 (14차 유학생, 신학생)
 - 8/6-8 창조과학 탐사여행 (커피브레이크 E.M., 김선옥)
 - 8/9-11 빙하시대 탐사여행 (산호세 새소망교회, 408-727-5950)
 - 8/10-12 International Grace Ministry (김선옥), Fullerton, CA
 - 8/11-18 과테말라 깨살떼낭고 (최상득 선교사 사역지, 중고 및 대학, 신학교, 이동용, 630-400-6114)
 - 8/19 과테말라 시티 한인교회 (중고등부 및 일반 이동용, 630-400-6114)
 - 8/13-16 창조과학 탐사여행 (지구촌교회)
 - 8/13-15 창조과학 탐사여행 (타코마제일침례교회 E.M., 김선옥)
 - 8/23-30 창조과학 탐사여행 (일본인, 이재만)
 - 8/28-31 TORONTO KOSTA (최우성), Canada
 - 8/30-12/13 Bethesda Univ. (최우성), CA
 - 9/1-3 창조과학 탐사여행 (LA 온누리교회)
 - 9/2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9/7-13 창조과학 탐사여행 (안산동산교회)
 - 9/7-9 Church of Bethlehem (김선옥)
 - 9/9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9/10-11/12 중부 창조과학학교 제13기 (시카고 제일한인장로교회, 이동용), IL
 - 9/14-16 Renewal Community Church in Bristow, (김선옥), VA
 - 9/16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9/23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9/20-25 일본방문(이재만)
 - 9/25-10/15 한국방문(이재만)
 - 9/25 햇빛트리니티 CEO 스쿨(이재만), 한국
 - 9/26-28 좋은씨앗교회(이재만), PA
 - 9/29-30 몽고메리제일감리교회(김선옥)
 - 10/7 파주순복음 풍성한 교회(이재만), 한국
 - 10/11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이재만), 한국
 - 10/13 새벽나라 세미나(이재만), 한국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43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15
Tel. 213-381-1390 Fax 213-381-9242 www.HisArk.com / hisark@gmail.com